



새로운 랜드마크 거둬 · 지역상권 활성화에 '숨통'

전주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 앞 백제대로가 보행자 중심의 명품 숲 광장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전주 첫 마중길 조성공사가 속도를 내면서 호남의 대표관광인 전주역의 첫인상이 확 바뀌고 있다. 전주 첫 마중길 조성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첫 마중길 조성으로 전주의 첫인상을 바꾼다
전주역은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266만명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128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전주역보다 이용객이 늘어난 역은 서울역 단 한 곳뿐이다.
전주시가 해마다 이용객이 늘면서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 앞 대로를 전주 첫 마중길로 조성해 전주의 첫 인상을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자동차 중심이었던 전주역 앞 대로의 차도를 줄이는 대신 도로 한 가운데는 명품 가로수와 광장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전주역 앞에 조성된 명품 가로수 길과 문화광장 등이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면, 그간 전주역에 내려 버스나 택시를 타고 한옥마을 등 주요관광지로 이동했던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속방지턱 · 횡단보도 결합한 교통시설인 험프식 횡단보도로 중앙 광장 · 인도 각종 전시회 · 버스킹 공연 등 문화 콘텐츠로

또, 서부신시가지 등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활성화에 밀려 침체됐던 주변 역사권 경제도 되살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첫 마중길 조성이 아중호수 중심으로 한 아중호반도시 건설과 전주역사 전면개선 등의 효과와 맞물려, 신도시 개발 등에 밀려 소외받던 전주 동부권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선도로로 차량 속도 줄여 안전한 보행환경 만든다
시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보다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기존 첫 마중길의 직선도로를 곡선형 도로로 바꿨다.
자동차의 속도가 줄어들면, 첫 마중길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시민과 관광객 등 보행자들도 대로 양측 상가와 중앙 광장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곡선도로로 인해 대로 양측으로 단절된 전주역 상권도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첫 마중길에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결합한 교통시설인 험프식 횡단보도를 만들고, 주변 차량속도를 40km/h 이하로 제한하는

등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단속용 CCTV 설치와 과속카메라도 설치키로 했다.
앞서, 시는 첫 마중길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국비 30억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 등 총 60억원을 들여 전주 첫 마중길 조성공사를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전주역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850m 구간을 기존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인도를 10m에서 2.5m로 축소하는 공사가 완료된다.
시는 앞으로 도로 한 가운데 폭 15~20m 규모의 보행광장을 만들고, 광장에는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등을 식재해 명품 숲 광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첫 마중길 명품 숲은 시민 희망나무 헌수운동을 통해 도시공간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심고, 기쁘며,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첫 마중길을 사람과 문화로 채워 동부권에 활기를
시는 첫 마중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 문화수도 전주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중앙 광장과 인도를 각종 전시회와 버스킹 공연 등 문화콘텐츠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핸드메이드 시티리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치 창출을 위해 지역 예술가와 작가들과 함께 첫 마중길 주변 버스승강장과 의자, 벤치, 각종 상징물 등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의 성공 개최와 개막전 손님맞이를 위해 주요공정을 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공정이 완료되면 첫 마중길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전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KTX 등 열차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도시의 첫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시는 걷기 좋은 생태문화거리인 첫 마중길이 시민들에게는 생태와 문화가 스며있는 도심 속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켜 지역상권도 되살아나고 관광경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 스스로가 아름답고 쾌적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전주의 생태축을 복원하고, 문화가 흐르는 생태거리를 만드는 생태거리 조성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전주역사 전면개선 등이 완료되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활성화에 밀려 침체됐던 전주 동부권 개발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숨통을 열어줄 것"이라면서 "동부권 개발의 신호탄인 첫 마중길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첫인상을 각인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